



대북 농업 지원 방안

남북한 농업 협력의 현주소와 전망 · 임을출

농업 종자 지원 방안 · 이두순

비료 지원 방안 · 김삼식

영농 자재 지원 방안 · 방한오

남북한 농업 협력의 현주소와 전망

임을출 / 「한겨레」 정치부 기사

남북 한의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을 돕기 위한 남북한 민간 또는 정부간 농업 협력 사업이 그동안의 논의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단순 식량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북한 식량난 해결은 물론, 보다 중장기적인 남북한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이른바 '문민 정부'에서는 농업 분야 남북간 교류 협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유엔기구를 통해 영농 자재 등을 지원하면서 4총회담 개최 등 남북 대화가 무르익을 때,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 농업 협력을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했었다.¹⁾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은 북한을 남북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 카드로 간주돼왔던 셈이다.

또 민간 차원에서는 농업 협력 목적의 기업인, 농업 전문가 등의 접촉 방북을 시범적 경험 범위 내에서 허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새정부 출범을 바로 앞둔 지난 1월 말에 가서야 슈퍼 옥수수 박사 김순권 경북대(1998. 1.24~2.3 개천, 안주, 문덕, 원산, 통천 등) 교수를 비롯해 인공 씨감자를 개발한 정 혁(1.22~26, 나진·선봉) 한국과학기술원 인공 씨감자 연구실장 등의 농업 전문가들에 의한 북한 농업 실태 파악을 위한 방북이 이뤄졌다.

새정부, 농업 교류·남북 대화 병행 추진

그러나 새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²⁾을 내놓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1) 통일원(1997. 10),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국정 감사 제출 자료」.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97. 2), 「신정부 임기중 100대 과제」.

으로 종자, 영농 자재 및 영농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기업에게 팔, 콩, 참깨 등 농작물의 시범적 계약 재배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점차 허용해나가면서, 민간 차원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이끌어내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에 힘입어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은 종교 단체, 농과 대학, 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폭 넓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도 적극 모색³⁾하고 있는 터이다. 통일원은 지난 3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 ① 공개, 비공개 등 당국간 접촉과 대화를 통해 농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② 비료 농약 영농 기술 등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③ 유엔개발계획(UNDP) 대북지원원탁회의(4.29~30, 제네바) 등 국제 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없이 북한 농업 개혁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점차 허용해나가면서, 민간 차원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이끌어내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부가 북한과의 공개, 비공개 등 '당국간' 접촉과 대화를 통해 농업 협력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사실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사업이 종합적인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고 막대한 자원

이러한 새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에 힘입어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은 종교 단체, 농과 대학, 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폭 넓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3월말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농업 분야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을 따낸 단체나 기업은 없다. 그러나 4월 이후부터는 적지 않은 단체나 기업들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통일부(1998. 3.17), 「199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북한두레마을추진본부(대표 김진홍 목사)는 지난 2월 28일 북한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수열)와 나진·선봉경제특구내 310만 평에 남북한 첫 공동농업생산체인 '북한두레마을' 조성과 장공장 설립을 위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남북한 첫 농업 협력 시험대 '북한두레마을'

민간 차원의 첫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은 종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북한두레마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두레마을추진본부(대표 김진홍 목사)는 지난 2월 28일 북한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수열)와 나진·선봉경제특구내 310만 평에 남북한 첫 공동농업생산체인 '북한두레마을' 조성과 장공장 설립을 위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구체적 계약 내용은 <표> 참조).

나진·선봉 두레마을에는 국내 농업 전문인력 20여 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각종 영농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또 북한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이르면 4월부터 콩과 옥수수, 감자 등을 생산하고 돼지 가공 식품도 만들어 북한내 식량 공급을 하게 되며 일부는 해외에 수출도 할 계획이다. 추진본부측은 이를 위해 우선 두레마을에 대규모 돼지 축사를 조성하고 받은 개간한 뒤 국내에서 개발

된 '씨감자'를 심기로 했다. 이미 제주도에 씨감자 제조 회사를 갖고 있는 대상그룹과 40만 개의 종자 확보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기업 차원의 농업 분야 협력 사업 추진도 활발하다. 중국과의 농수산물 전문 교역 업체인 백산실업은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전체 2만여 평의 부지를 장기 임차해 연간 300 톤의 버섯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주)동부한농은 농약 및 종묘 공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강원대 농대 등에서도 북한과의 농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올해 안에 북한산 참깨, 메밀, 팥, 콩 등 농산물을 계약 재배한 뒤, 국내로 다시 들여와 중소 식품 업체의 원료로 쓰기 위한 계약을 북한 광명성경제연합회와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일반 대학 혹은 국책 연구소의 유명 농업학자·전문가들도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슈퍼 옥수수 박사 김순권 경북대 석좌교수는 1월 말에서 2월초 10여 일간 북한의 개천, 안주, 문덕, 원산, 통천 등 6개 지역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옥수수 경작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다. 이때 그는

‘화성 1호’ 등 옥수수 종자 8 개 종과 통천옥수수농장 토양을 갖고 들어와 북한에서의 슈퍼 옥수수 개발의 적합성을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13일

슈퍼 옥수수 박사 김순권 경북대 석좌교수는 1월 말에서 2월초 10여 일간 북한의 개천, 안주, 문덕, 원산, 통천 등 6 개 지역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옥수수 경작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다. 이때 그는 ‘화성 1호’ 등 옥수수 종자 8 개 종과 통천옥수수농장 토양을 갖고 들어와 북한에서의 슈퍼 옥수수 개발의 적합성을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을 만들어 ‘북한 옥수수 심기 범국민 운동’⁴⁾을 전개하면서, 남북한 농업 교류 협력 사업으로 ① 농산물 생산 기술 및 종자 교류, ② 옥수수 육종·재배 공동 연

〈표〉 북한·두레마을 남북 농업 협력 사업 계약 내용

- 사업 목적: 과학적인 농업 경영 방법으로 종합 농업 지구를 조성하여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관광 농업, 목축의 복합 영농으로 리운을 증대하며 농업의 과학적 경영 기술 보급을 통하여 지대 농업과 목축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 사업 내용
 - 종자 보급: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육종된 최고 수준의 육종 보급
 - 선진 농업 과학 기술 이전
 - 주곡증생산단지 조성: 벼, 보리, 밀, 콩, 감자, 옥수수 등
 - 특용작물단지 조성: 원예, 과수, 약용, 유류, 섬유 작물 등
 - 농산물가공단지: 농축산물 일체 가공 처리
 - 축산단지 조성: 소, 염소, 양, 돼지, 닭, 오리 등
 - 농업기술연구소 및 실습 농장
 - 농업 기계, 비료 등 농기구 자재 도입에 관한 제반 업무
 - 농축산물 수출 업무
 - 기타 농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 투자 규모: 800만 달러를 연차적으로 투자
- 사업 장소: 나진·선봉지대
- 지적된 협동조합의 기술 관리 및 생산 분배는 계약 쌍방이 협의하되 해외 수출은 두레마을 영농조합이 담당한다.
- 본 협동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한다.
- 본 협동농장을 위하여 나진·선봉지대에 방문할 행정 기술 인원들의 자유로운 입국과 체류에 대해서는 북한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에서 책임진다.
- 본 협동농장의 경영을 위하여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종자 및 가족의 무관세 통과는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에서 책임진다.
- 쌍방의 분쟁시에는 지대 당국의 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대 당국의 법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할 때는 국제법에 따른다.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보충한다.

북한이 최근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 종자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유관 기관에서는 우리 품종 가운데 북한에 보급이 가능한 다수확 품종의 검정 및 선정에 마친 상태다. '오대', '소백벼' 등 조·중생종벼 20여 개, 감자, 옥수수 등이 대표적인 품종들이다.

구 - 남북한 옥수수 공동 연구소 설립, 옥수수 경작 및 간작으로 벼밀, 녹두, 팥, 콩 경작, 농산물 시험 재배 및 계약 재배, ③ 영농 자재 지원 협력 사업 - 비료, 농기구 지원 협력, 북한 옥수수 농업 기술 지원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순권 박사 이외에도 인공 씨감자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IST) 생명공학연구소의 정 혁 인공 씨감자 연구실장, 김경량 강원대 농대 교수(농경제학, 북한 농산물유통 체계 연구) 등이 종교 단체나 기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북한 농업 지원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림부 등도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작업 착수

정부 차원의 북한 농업 구조 개선 계획에 통일부가 종합 조정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구체적으로 ① 일

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계약 재배 형식, ② 두레마을 등 합영농장 방식, ③ 중국 삼강평원, 연해주, 우수리스크 등 남북한 인접 지역 등 제3국 투자 방식을 통해 북한 농업 지원, ④ 국제 기구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탁기금(Trust Fund) 방식으로 투자, ⑤ 북한은 토지·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농업 기술, 우량 종자, 농약, 비료를 제공하는 위탁 영농 방식의 남북한 농업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농업 개혁 프로그램을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 농림부는 우선 ① 대북 투자 안정성 확보 방안, ② 소요 재원 조달 방법과 절차, ③ 농업 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행정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 종자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유관 기관

4) 김순권 박사는 한반도 옥수수 재배시 72만 정보 가운데 북한 지역이 60만 정보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당장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될 사업은 북한 옥수수 심기 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노동력과 남한의 종자 보급 기술이 결합되면 정보당 7 톤, 한 해 420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어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을 350g으로 할 때 3,200만 명의 수식이 옥수수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서는 우리 품종 가운데 북한에 보급이 가능한 다수확 품종의 검정 및 선정을 마친 상태다. '오대', '소백벼' 등 조·중생종벼 20여 개, 감자, 옥수수 등이 대표적인

품종들이다. 종자는 철원, 진부 등 북한의 기후 등 성장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국내 연구원이 시험 재배해 검정 작업을 벌였다.

유엔농업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말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120만 달러 어치의 수해 복구를 위한 각종 중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부터는 남북한 직접 협력 방식과는 별개로 유엔기구의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우선 다른 나라 회원국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손분무기, 이앙기, 농약, 비료, 보리·밀·옥수수 종자, 비닐 등의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개 시설 복구, 관개 운하 설치, 매물 경지 복구, 보조 농로 긴급 보수 등도 시급한 지원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추진 중인 '잡업 개발 사업'은 북한의 만성적인 자연 재해 방지 및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할

다른 나라 회원국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손분무기, 이앙기, 농약, 비료, 보리·밀·옥수수 종자, 비닐 등의 공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개 시설 복구, 관개 운하 설치, 매물 경지 복구, 보조 농로 긴급 보수 등도 시급한 지원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정부 유관 부서에서 공동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 기구를 통한 북한 농업 구조 개선 사업 참여는 이제 단순 식량 지원보다는 북한 농업 개발·영농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기 지원 단계에서는 신탁기금(Trust Fund)을 활용하고 본격 지원 단계에서는 국제통화기금체제 도입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절감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공동 부담 방식의 농업 협력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탁기금 방식으로 대북 농업 지원을 할 경우 사용처를 북한으로 제한하고 자재 기술 인력의 일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 특정 지역의 남북한 시범 농장 개발 사업 등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비정부단체(NGO's)를 통한 남북한 농업 협력 사업 참여도 지금과 같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적절

최근 머시코인터내셔널, 카터센터와 록펠러재단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내 비정부 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와 미국 비정부 단체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봄보리 이모작 프로젝트' 등은 외환 위기로 인한 대북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남북 농업 협력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접근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머시코인터내셔널, 카터센터와 록펠러재단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내 비정부 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와 미국 비정부 단체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봄보리 이모작 프로젝트' 등은 외환 위기로 인한 대북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남북 농업 협력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⁵⁾ 특히, 이러한 협력 방식은 외국 비정부 단체로 하여금 각종 국내 농업 지원 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 국내 경제 살리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⁶⁾

이러한 다양한 남북한 협력 사업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비료, 농약, 종자 등을 비롯한 각종 영농 자재를 자체 힘으로 구입

하고 스스로의 영농 기술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생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 남북한 합작농장이 기존 협동농장보다 나은 농업 생산 성

과를 보여줌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북한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의한 농업 개혁에도 순기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다른 분야와는 달리 북한 당국은 극심한 식량난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과의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받아들일 태세고, 한국 정부도 과거와 달리 단순 식량 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올 한 해는 농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남북한 교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續**

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봄보리 이모작 프로젝트'에의 공동 참여를 위해 한국비료협회에서 기증한 요소 복합 비료 800 톤을 지난 3월 중순 북한에 보낸 바 있다.

6) 최창무 주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1998. 2. 7), 「1998년 대북 민간 지원 활동의 나아갈 방향」, 사회 각계 인사 정책 간담회.